

### 3. 요약

#### 3.1 인구변화와 인구성장

##### 지난 반세기 동안 서울 인구는 감소추세, 수도권 인구는 서울인구를 흡수하여 성장하는 추세

서울의 인구는 50여 년 전인 1960년 2백 4십여 만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 천만도시로서의 정점을 찍은 이후 2010년 기준 9백 6십여 만 명으로 감소추세이다. 이러한 서울의 인구감소는 수도권에서 흡수하는 형태로 나타나 2010년 수도권 인구는 2천 3백여 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48.9%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 서울의 자치구 평균인구수는 40여 만 명, 2010년 기준 가장 큰 자치구는 송파구

서울을 구성하는 25개 자치구의 평균인구는 40여 만 명이며, 2010년 기준 송파구가 64만여 명으로 가장 인구규모가 큰 자치구이며, 도심의 자치구인 중구와 종로구의 상주인구가 10만여 명 내외로 가장 작다.

#### 3.2 2030년 인구규모 예측

##### 서울시 추계인구는 2026년 1,022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 시작

서울의 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서울시 인구는 2013년부터 다시 미미하게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금씩 증가하는 서울시 인구는 2027년을 정점으로 하여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수도권도 2031년 2,670만 명을 정점으로, 전국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절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서울의 인구 고령화의 지속과 인구유입 억제로 인구증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199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한데는 서울로의 유입인구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앞으로도 서울의 지가 및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서울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낮은 출산력과 노년층에서 사망력의 감소는 서울인구의 고령화를 지속시킬 것이고, 서울로의 인구유입 억제가 결합하여 서울의 인구 증가는 쉽사리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 III. 인구구조

1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	
2	성별 인구구조	2.1 성별 인구구조의 변화 2.2 출생시 성비의 변화
3	연령별 인구구조	
4	학령인구의 변화	4.1 학령인구의 변화, 2000-2040
5	교육수준별 인구구조	
6	생산가능인구와 피부양인구	6.1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1980-2010 6.2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2010-2040 6.3 부양비, 1980-2040
7	혼인 인구의 변화	7.1 서울의 혼인인구 변화 7.2 20-49세 연령층의 미혼인구 변화 7.3 이혼인구의 변화
8	외국인 인구	8.1 외국인 인구변화 8.2 외국인 인구의 성비변화 8.3 서울시 거주자 중 외국출생자 비율
9	요약	9.1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9.2 학령인구와 교육수준 9.3 생산가능인구와 피부양인구 9.4 혼인인구와 외국인 인구

# 1.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

## 합계출산력 2.0에 접근한 1980년도 인구피라미드는 전통적인 유형에서 벗어나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에 출산력 저하를 경험했다. 1960년에 합계출산율 6.0 수준에서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 2.0 수준으로 떨어지는 급격한 변동을 경험했다. 1960년대 초반에 도입된 강력한 출산력 억제 정책인 가족계획사업의 실시로 인해 출산력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고출산, 고사망 형태의 전형적인 인구피라미드는 유소년층이 감소하고 대신 중장년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인구구조로 변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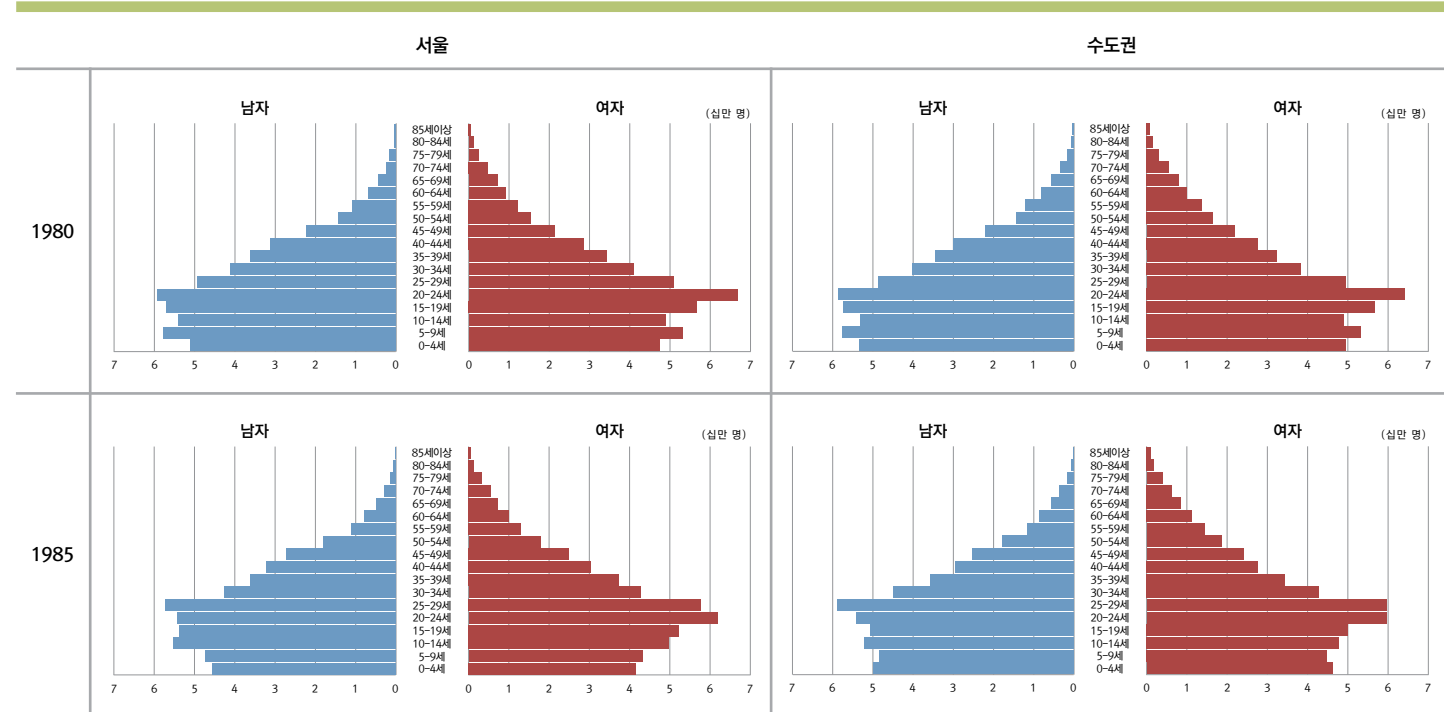
1980년도의 서울의 인구구조는 밀이 넓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비율이 줄어드는 전형적인 인구피라미드가 아니라, 서울로 인구유입이 지속되면서 출산력이 낮아지면서 1980년에 0-4세까지의 인구비율이 5-9세 인구비율보다 낮은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한다.

## 1995년 인구구조는 출산력의 상승을 반영

1990년대에 정부의 인구정책은 변화를 겪는다. 출산력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인식한 정부는 출산력 억제 정책을 지속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출산력 증가 정책으로 선회한 것도 아니다. 갑자기 출산력 억제 정책에서 한 발짝 물러선 자세를 취하고, 피임 등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줄였다. 그 결과 1990년대에는 일시적으로 출산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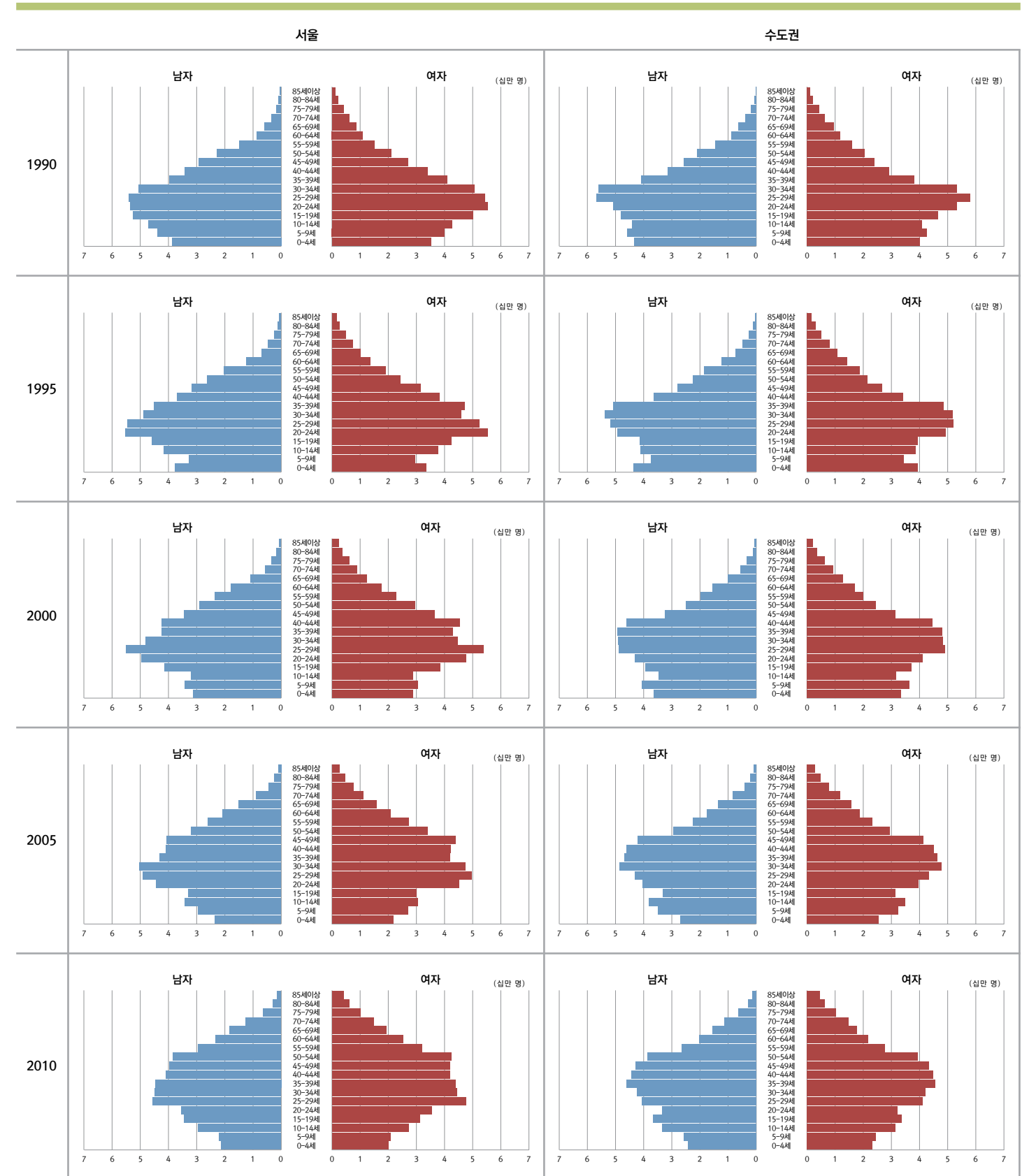
서울시의 인구구조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1995년의 인구구조는 0-4세의 인구비율이 5-9세의 인구비율보다 더 높다. 즉 1990년대 출산력이 상승하면서 다시 0-4세 인구가 증가하고, 5-9세까지의 인구비율보다 높은 수준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이었다.

그림 3-1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피라미드(1980-1985)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그림 3-2 서울과 수도권 인구 피라미드(1990-201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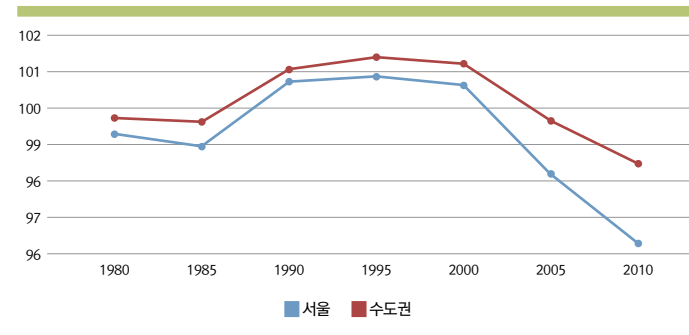
## 2. 성별 인구구조

### 2.1 성별 인구구조의 변화

#### 2010년 서울의 성비는 96.3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성비는 1980년과 1985년 100 미만이었다가,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100 이상을 기록한다. 그러다 2005년부터 서울의 성비는 100 미만을 기록하며, 2005년 여성 100명 대비 남성의 수는 98명, 2010년 96명을 기록한다. 전국적으로도 2005년부터 성비가 낮아지나, 서울의 여성대비 남성 인구수의 감소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림 3-3 서울과 수도권의 성비 변화(1980-201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표 3-1 서울과 수도권의 성비 변화(1980-2010)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서울	99.3	99.0	100.8	100.9	100.7	98.2	96.3
수도권	99.8	99.7	101.0	101.4	101.3	99.7	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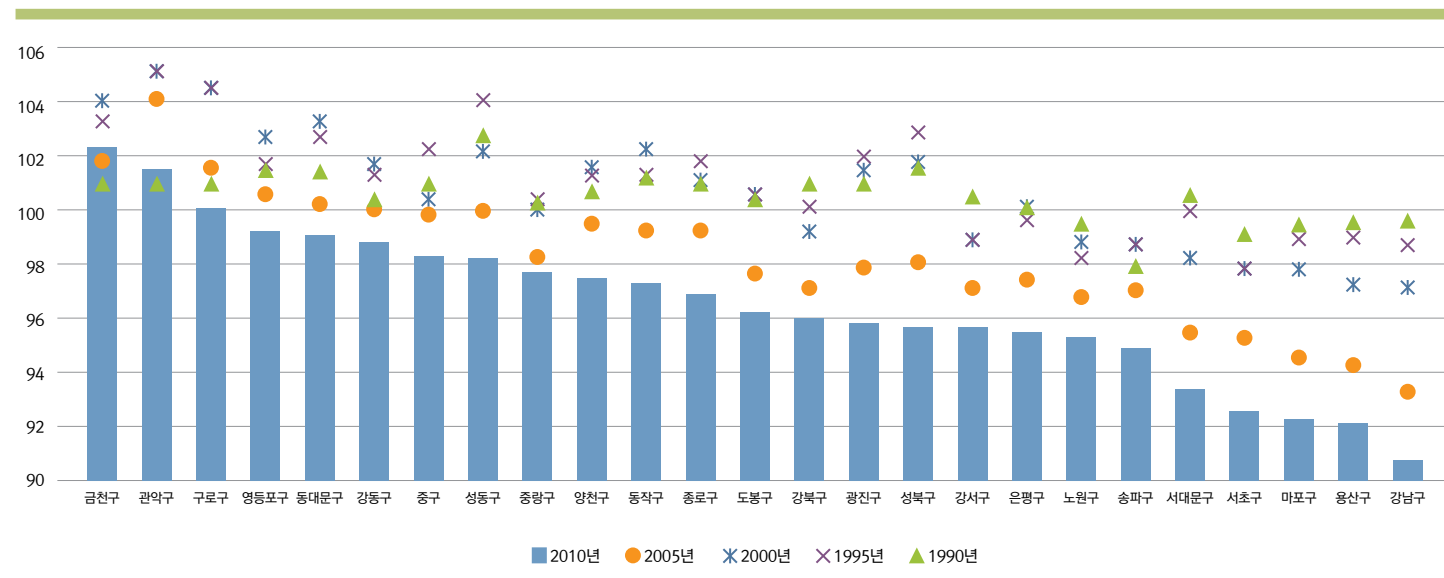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 2010년 서울에서 성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금천구로 102.3을 기록

201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성비가 가장 높은 구는 금천구로 나타났다. 이어 관악구(101.5), 구로구(100.1), 영등포구(99.2),

동대문구(99.1)가 2~5위를 기록했다. 금천구는 제조업 중심의 공장이 존재하고 있어 남성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의 성비가 모두 100 이상 혹은 100에 근접해 있는 것은 비교적 젊은 층의 남성노동자가 많은 까닭이다.

그림 3-4 서울 자치구별 성비변화(1990-201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표 3-2 서울 자치구별 성비변화(1980-2010)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금천구				103.3	104.1	101.9	102.3
관악구	101.7	101.4	103.9	105.1	105.7	104.2	101.5
구로구	97.6	98.6	101.2	104.6	104.5	101.6	100.1
영등포구	97.9	98.2	101.5	101.7	102.8	100.7	99.2
동대문구	100.3	99.2	101.5	102.8	103.4	100.2	99.1
강동구	99.4	98.5	100.4	101.4	101.8	100.1	98.8
중구	99.6	98.2	100.9	102.3	100.5	99.9	98.3
성동구	100.7	101.0	102.8	104.2	102.2	100.0	98.2
중랑구			100.4	100.5	100.1	98.3	97.7
양천구			100.8	101.3	101.7	99.6	97.5
동작구			101.3	101.3	102.3	99.3	97.3
종로구	96.6	96.3	101.1	101.9	101.1	99.3	96.9
도봉구	100.1	99.5	100.5	100.6	100.6	97.7	96.2
강북구			100.2	99.3	97.2	97.2	96.0
광진구			102.0	101.5	97.9	97.9	95.8
성북구	98.4	99.3	101.7	103.0	101.8	98.1	95.7
강서구	100.1	98.9	100.5	99.0	98.9	97.2	95.7
은평구	99.2	99.6	100.2	99.8	100.2	97.5	95.5
노원구			99.5	98.3	98.9	96.8	95.3
송파구			98.0	98.8	98.8	97.1	94.9
서대문구	99.0	97.8	100.6	100.0	98.4	95.5	93.4
서초구			99.2	97.8	98.0	95.3	92.6
마포구	98.9	97.6	99.5	99.0	97.9	94.6	92.3
용산구	98.1	97.1	99.7	99.0	97.3	94.4	92.1
강남구	97.4	97.9	99.7	98.8	97.2	93.3	90.7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 2.2 출생시 성비의 변화

### 서울시 출생시 성비는 지속 감소하여 2010년 106.9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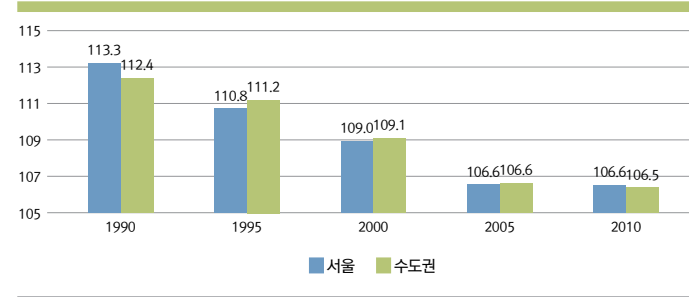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1990년대에 출생시 성비가 크게 왜곡되었다. 1990년 출생시 성비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116.5이었고 수도권은 112.4, 그리고 서울은 113.3이었다. 대개 자연상태에서 출생시 성비는 102-107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의 출생시 성비는 거의 자연상태의 성비로 돌아왔다.

2005년 현재 전국의 출생시 성비는 107.8로 여전히 자연성비에는 약간 못미치고, 남아가 자연상태보다 약간 더 많이 태어난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서울의 출생시 성비는 106.6 수준으로 정상성비의 범위 내에 있다.

### 셋째 자녀 이상 순위의 출생시 성비는 여전히 남아선호 현상을 보여줌

출생순위별로 출생시 성비를 보면 서울의 경우 1990년에 첫째 자녀의 출생시 성비는 108.3, 둘째 자녀 출생시 성비는 113.0이었다. 그런데 셋째 자녀의 출생시 성비는 199였다.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여아 1명이 태어나면 남아 2명이 태어날 정도로 출생시 성비가 크게 왜곡되어 있었다. 최소한 남아 1명은 있어야 한다는 남아 선호사상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 둘째 자녀까지도 아들을 얻지 못한 경우 셋째 이상의 자녀에서는 꼭 아들을 낳겠다는 태도가 출산행위에 반영되었다.

그림 3-5 서울과 수도권의 출생시 성비 변화(1990-201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셋째 자녀의 성비는 크게 감소

1994년 셋째자녀의 성비는 서울, 수도권, 전국 모두 200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 130 안팎까지 떨어졌다. 1998년 성비는 전년대보다 약간 상승하였다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을 전후하여서는 110 수준까지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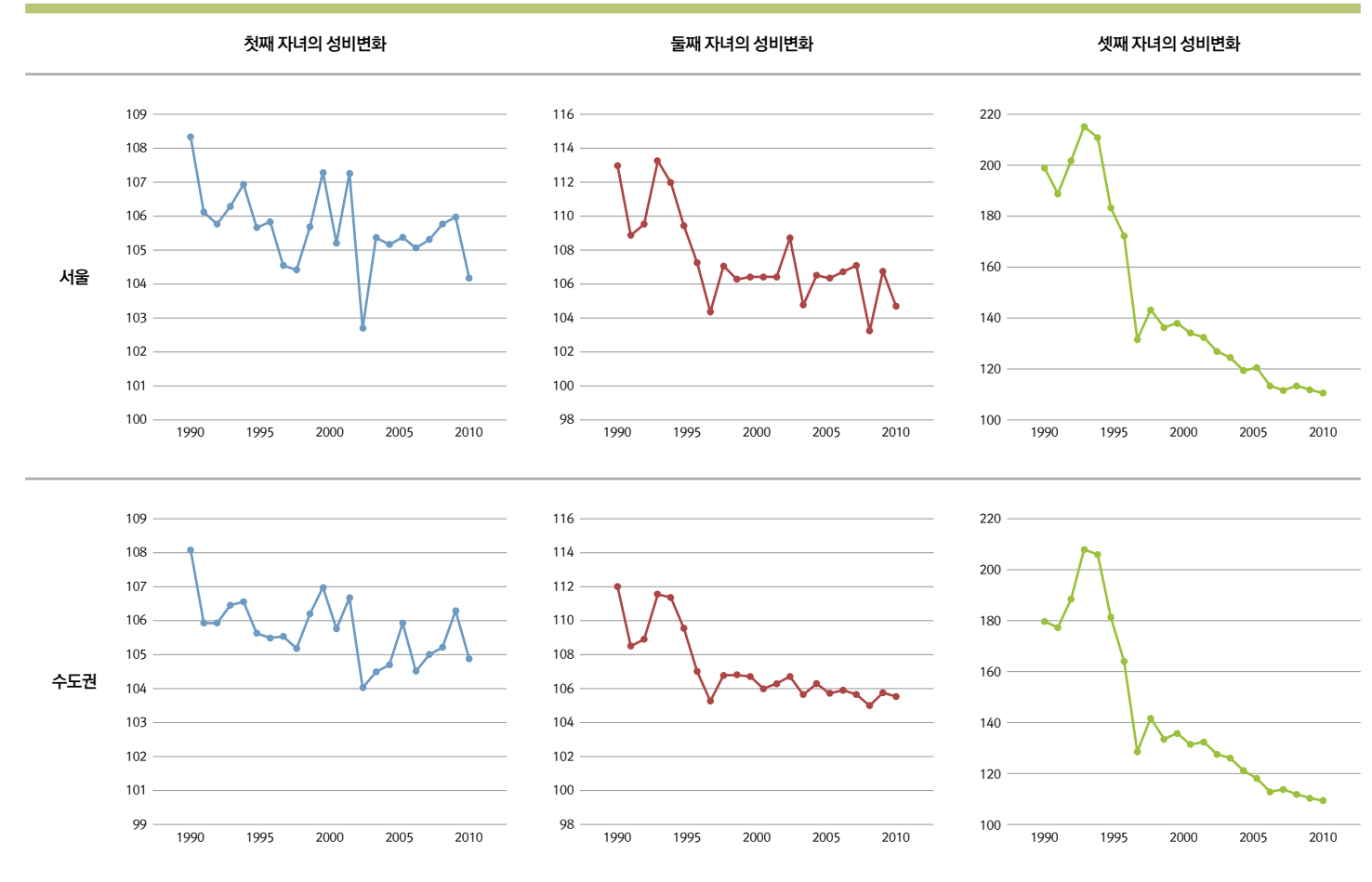
1996년까지는 서울 셋째자녀의 성비가 수도권이나 전국 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1997년 이후 전국 수준보다 떨어져, 1997년 이후에는 서울 및 수도권보다 전국의 셋째자녀의 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3 서울과 수도권의 출산 순위별 성비 변화(1990-2010)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서울	전체출생아	113.3	110.8	109.0	106.6	106.6
	첫째 자녀	108.3	105.7	107.3	105.1	105.9
	둘째 자녀	113.0	109.4	106.4	106.6	106.7
	셋째 자녀	199.0	183.2	137.4	118.8	110.8
수도권	전체출생아	112.4	111.2	109.1	106.6	106.5
	첫째 자녀	108.1	105.6	107.0	104.6	106.2
	둘째 자녀	112.0	109.5	106.6	106.2	105.7
	셋째 자녀	181.0	182.2	136.6	121.7	110.5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그림 3-6 서울과 수도권의 출산순위별 출생시 성비 변화(1990-201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 3. 연령별 인구구조

####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지속적 증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서울의 유소년 인구는 지난 30년 동안 1980년 31.3%에서 2010년 13.9%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80년 2.5%에서 2010년 9.3%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수도권과 전국은 유소년인구의 경우 각각 31.8%에서 16.2%, 34%에서 16.1%로 감소하였고, 고령인구는

수도권이 2.9%에서 9.0%, 전국이 3.8%에서 11%로 증가하였다. 전국 고령인구의 11%와 서울의 고령인구 9.3%를 비교하면 서울의 고령화 수준은 전국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며, 15-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연령층 인구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높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이다.

그림 3-7 서울의 연령별(14세 이하, 15-64세, 65세 이상) 인구비중의 변화(1980-201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표 3-4 서울과 수도권의 연령별(14세 이하, 15-64세, 65세 이상) 인구비중의 변화(1980-2010)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서울	14세 이하	31.3%	28.5%	24.7%	21.6%	18.6%	16.7%	13.9%
	15-64세	66.2%	68.7%	71.8%	74.2%	76.1%	76.2%	76.7%
	65세 이상	2.5%	2.9%	3.5%	4.2%	5.3%	7.1%	9.3%
수도권	14세 이하	31.8%	29.1%	25.6%	23.8%	21.5%	19.3%	16.2%
	15-64세	65.4%	67.7%	70.5%	71.8%	73.0%	73.6%	74.9%
	65세 이상	2.9%	3.2%	3.9%	4.5%	5.5%	7.1%	9.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 4. 학령인구의 변화

#### 4.1 학령인구의 변화, 2000-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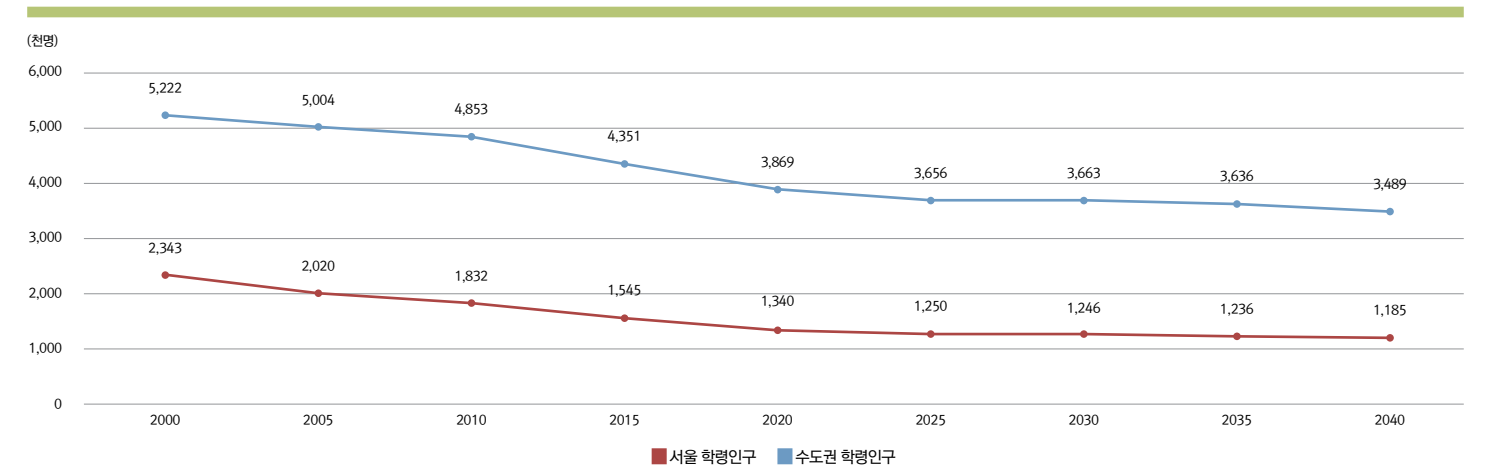
##### 2010년 현재 서울의 학령인구 규모는 183만 명

학령인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인구를 칭한다. 각급 학교의 교육연한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6세부터 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그리고 대학교는 18세-21세까지를 학령인구라고 칭한다. 각급 학교별 연령층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2010년 현재 서울시의 경우 183만 명이다. 2000년 서울시의 학령인구 규모는 234만 명이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서울시의 학령인구는 무려 50만 명 이상 감소되었다.

##### 서울의 학령인구는 2020년 134만, 2040년 118만 명까지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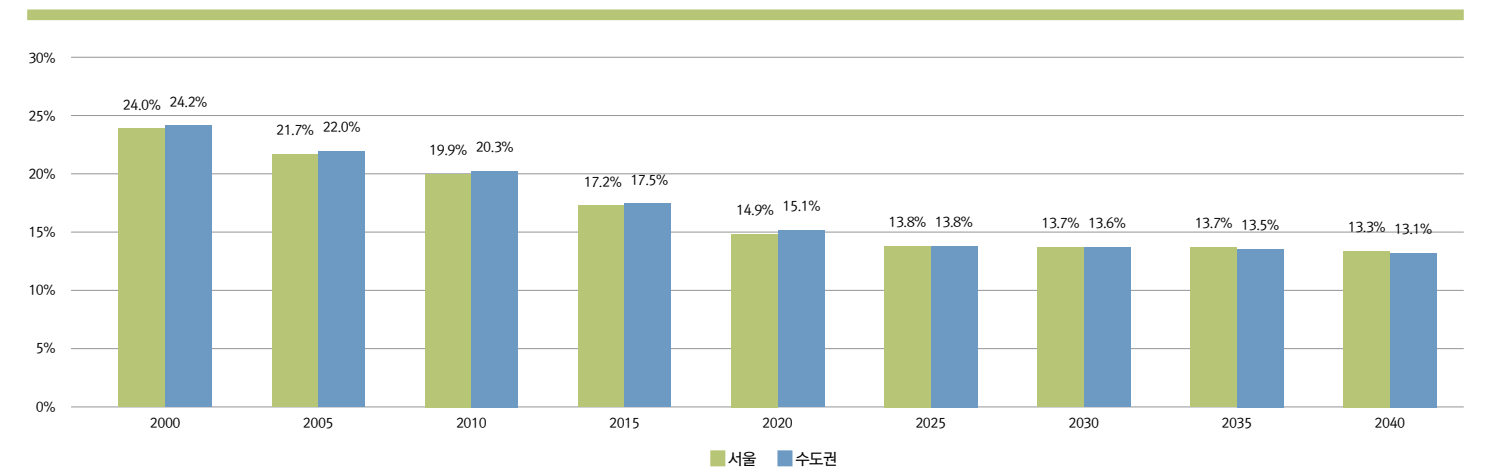
2010년의 서울의 학령인구는 183만 명이지만, 2015년에는 154만 명으로 감소하고, 2020년에는 134만 명, 그리고 2040년에는 118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저출산의 영향인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3-8 서울과 수도권의 학령인구 변화(2000-204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그림 3-9 서울과 수도권의 5년 단위 전체인구 대비 학령인구의 비중변화(2000-204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 5. 교육수준별 인구구조

### 4년제 대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서울시 인구에서 가장 크게 증가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교육은 인적자원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구의 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면 한 인구집단의 교육수준은 인구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이고, 인적자원이라는 개념자체가 교육수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인구의 질적 수준은 다른 어느 지역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다. 1990년에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서울시 인구의 18%에 불과했었는데, 2010년에는 34%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수도권에서는 1990년에 대졸의 비율이 14.5%였고, 2010년에는 28%였다. 수도권에 거주해보아도 서울의 고등교육 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0 서울과 수도권의 교육수준별 인구비중(1990, 2000, 2010년)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주 : 6세 이상 내국인에 한하며, '미상'은 제외, 해당 교육수준의 재학, 종퇴, 수료, 졸업상태를 포함

표 3-5 서울과 수도권의 교육수준별 인구와 비중(1990, 2000,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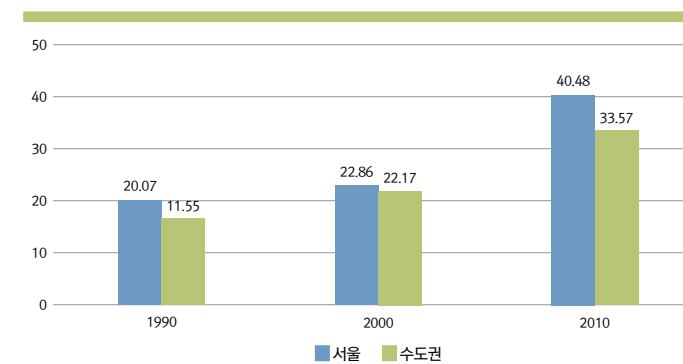
구분	서울			수도권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초등학교	1,902,900 19.7%	1,347,456 14.7%	1,105,890 12.1%	3,632,620 21.7%	3,287,451 16.9%	2,991,738 13.5%
중학교	1,680,344 17.4%	1,139,201 12.5%	950,644 10.4%	2,994,985 17.9%	2,500,697 12.9%	2,415,164 10.9%
고등학교	3,663,770 37.9%	3,216,442 35.2%	2,677,977 29.2%	6,359,693 38.0%	7,177,983 36.9%	7,113,982 32.2%
대학(4년제 미만)	299,815 3.1%	949,204 10.4%	1,092,359 11.9%	499,155 3.0%	1,884,353 9.7%	2,724,266 12.3%
대학교(4년제 이상)	1,737,205 18.0%	2,179,344 23.8%	3,116,526 34.0%	2,430,524 14.5%	3,794,012 19.5%	6,254,965 28.3%
안받았음	379,994 3.9%	309,247 3.4%	216,985 2.4%	809,620 4.8%	798,731 4.1%	625,959 2.8%
계	9,664,028 100%	9,140,894 100%	9,160,381 100%	16,726,597 100%	19,443,227 100%	22,126,074 10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주 : 6세 이상 내국인에 한하며, '미상'은 제외

### 20~49세 인구의 40.5%가 대졸 이상 학력층

생산가능인구 가운데에서도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교육에 가장 깊게 연관되어 있는 20~49세 연령층에서 서울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의 비율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 연령층의 대졸 이상자는 22.9%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40.5%에 이르렀다. 이를 수도권의 33.6%, 전국의 29.6%와 비교하면 서울의 고학력 인구의 집중정도를 알 수 있다.

그림 3-11 서울과 수도권의 20~49세 연령층 중 대졸 이상 학력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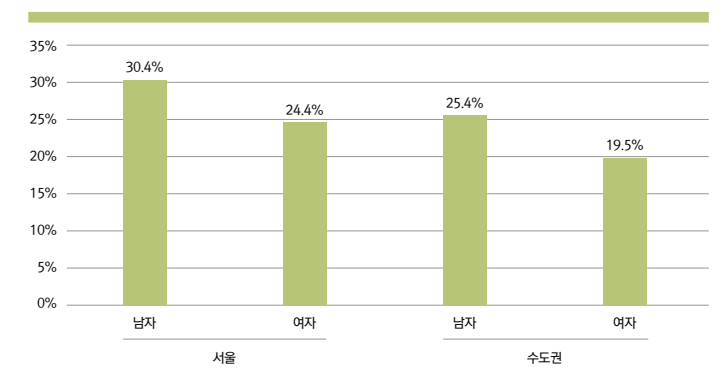


자료 : 각 년도 인구총조사 2% 표본자료; 2010년은 1% 표본자료

### 고학력층의 급격한 증가는 낮은 출산력과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와 밀접한 관련성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인 낮은 출산력이 역설적으로 개인의 교육수준의 상승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기회의 확대 및 교육수준의 향상은 혼인연령을 늦추고, 출산력을 낮추는데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림 3-12 2010년 서울과 수도권의 성별 대졸 이상 인구비중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주 : 6세 이상 내국인에 한함.

## 6. 생산가능인구와 피부양인구

### 6.1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1980-2010

#### 2010년 서울의 생산가능인구는 정점에 도달

1980년 서울의 부양인구의 규모는 564만 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66%를 차지하였다. 같은 시기 수도권 인구의 65%, 전국 인구의 62%가 부양인구였다.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유소년 피부양인구는 감소하지만, 노년 피부양인구는 증가했다. 2010년 기준 서울시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는 770만 명이고 서울시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76.7%이다. 수도권의 경우 이 비율은 74.9%로 서울보다 작고,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72.8%에 그치고 있다. 즉 2010년 서울의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최절정에 달해 있고,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가장 좋은 시기에 놓여 있다.

표 3-6 서울과 수도권의 부양인구 및 피부양인구 변화(1980-2010)

구분	서울				수도권			
	부양인구		피부양인구		부양인구		피부양인구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1980	5,638,269	66.2	2,878,181	33.8	8,853,779	65.4	4,690,225	34.6
1985	6,678,573	68.7	3,046,874	31.4	10,804,804	67.7	5,158,368	32.3
1990	7,516,847	71.8	2,956,405	28.2	12,931,464	70.5	5,410,681	29.5
1995	7,678,526	74.2	2,663,698	25.8	14,646,132	71.7	5,767,725	28.3
2000	7,670,195	76.1	2,408,239	23.9	15,882,666	73.0	5,864,675	27.0
2005	7,631,239	76.2	2,380,085	23.8	17,077,530	73.6	6,124,605	26.4
2010	7,709,438	76.7	2,341,070	23.2	18,230,448	74.9	6,109,046	25.1

\*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까지의 인구로 정의된다. 반면에 피부양인구는 유소년 피부양인구와 노년피부양인구로 나뉘는데, 유소년 피부양인구는 0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이고, 노년 피부양인구는 65세 이상의 인구로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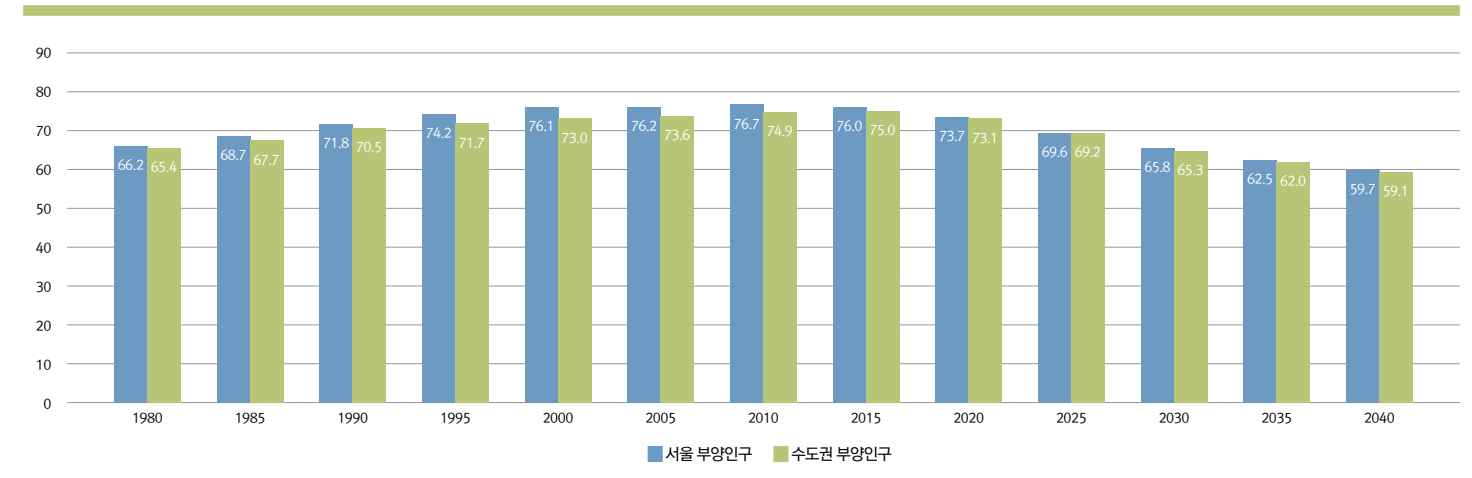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 6.2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2010-2040

#### 2010년을 기점으로 2040년까지 서울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 피부양인구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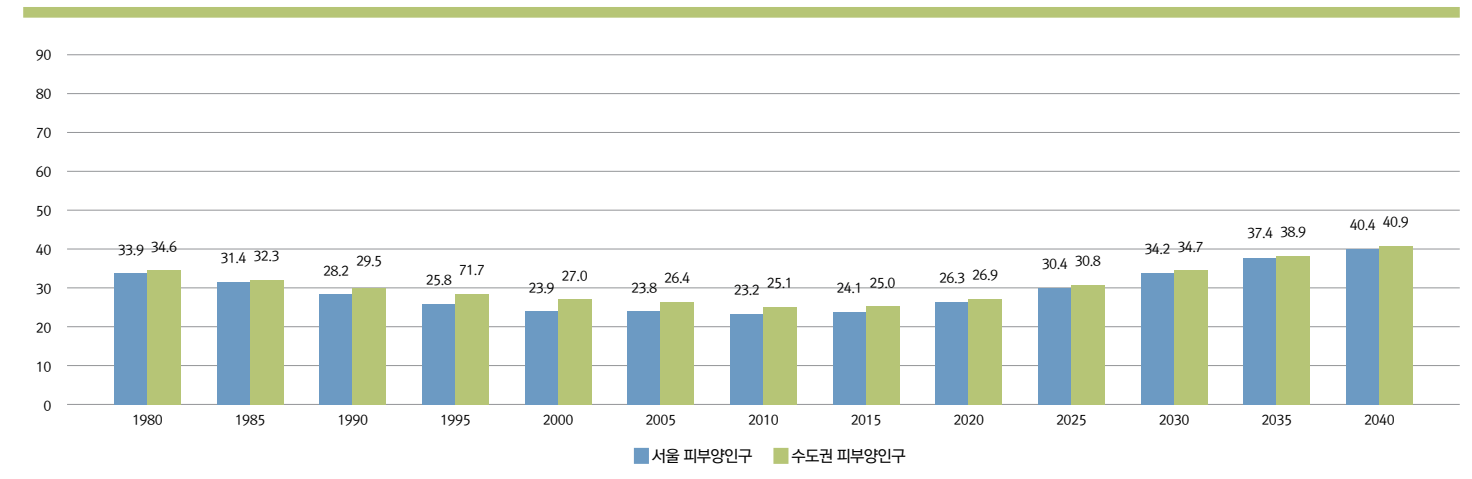
서울시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76%대에 들어선 때가 2000년이다. 이때부터 15년동안 생산가능인구는 76%대를 유지한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2010년과 2011년을 기점으로 서울시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는 정점에 도달한 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늙어가고, 생산가능인구의 규모 및 비율은 줄어들며, 대신 피부양인구의 규모와 비율은 늘어나, 고령화의 직접적인 영향에 노출되고 있다.

그림 3-13 서울과 수도권의 5년 단위 부양인구 비중 변화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그림 3-14 서울과 수도권의 5년 단위 피부양인구 비중 변화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표 3-7 서울과 수도권의 부양인구 및 피부양인구 변화(2010-2040)

구분	서울				수도권			
	부양인구		피부양인구		부양인구		피부양인구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2010	7,709,438	76.7	2,341,070	23.2	18,230,448	74.9	6,109,046	25.1
2015	7,615,453	76.0	2,410,303	24.1	18,913,688	75.0	6,314,160	25.0
2020	7,464,991	73.7	2,670,035	26.3	18,966,491	73.1	6,990,764	26.9
2025	7,114,190	69.6	3,100,232	30.4	18,321,451	69.2	8,143,459	30.8
2030	6,709,144	65.8	3,493,099	34.2	17,421,577	65.3	9,269,605	34.7
2035	6,315,203	62.5	3,786,625	37.4	16,491,296	62.0	10,128,979	38.0
2040	5,921,604	59.7	4,002,769	40.4	15,513,557	59.1	10,745,424	40.9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 6.3 부양비, 1980-2040

#### 2010년 기준 서울의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합한 총부양비는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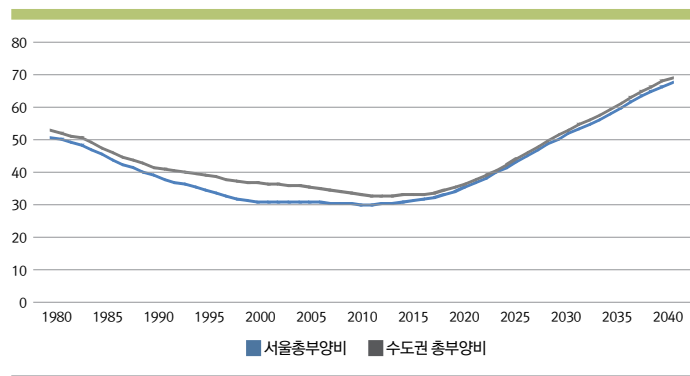
저출산은 유소년 인구의 규모를 줄이고 고령화는 고령인구의 비율을 늘려 결국에는 고령인구 부양부담을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의 효과가 고령화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지체가 있어, 저출산이 지속되면 유소년 부양비의 감소정도가 노년부양비의 증가보다 높아 총부양비는 감소한다. 서울의 총부양비는 1980년에는 51.0이었지만, 30년이 지난 2010년에는

총부양비가 30.4로 198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2010년 기준 총 부양비를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로 나누어 보면 유소년부양비는 18.2이고 노년부양비는 12.2로 유소년부양비가 노년부양비보다 여전히 높다. 아직은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보다 유소년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더 크다.

#### 조만간 노년부양의 부담이 유소년부양의 부담을 앞질러

2015~2016년이 되면 유소년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보다 감소하게 된다. 즉 저출산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유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반면에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서울의 유소년부양비는 16.0이고 노년부양비는 15.6이다. 그런데 1년 후인 2016년에는 유소년부양비가 15.8이고, 노년부양비는 16.2가 된다.

그림 3-15 서울, 수도권 총부양비 변화(1980-204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표 3-8 서울과 수도권의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변화(1980-2010)

구분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서울	수도권	서울	수도권	서울	수도권
1980	51.0	53.0	47.3	48.6	3.7	4.4
1985	45.6	47.7	41.5	43.0	4.2	4.8
1990	39.3	41.8	34.4	36.4	4.9	5.5
1995	34.7	39.4	29.0	33.2	5.6	6.2
2000	31.4	36.9	24.4	29.4	7.0	7.5
2005	31.2	35.9	21.9	26.2	9.3	9.6
2010	30.4	33.5	18.2	21.6	12.2	11.9
2015	31.7	33.4	16.0	18.7	15.6	14.7
2020	35.8	36.9	15.9	18.4	19.8	18.5
2025	43.6	44.4	16.8	19.1	26.8	25.3
2030	52.1	53.2	17.4	19.8	34.7	33.4
2035	60.0	61.4	17.5	19.9	42.5	41.5
2040	67.6	69.3	17.0	19.4	50.6	49.9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 7. 혼인 인구의 변화

### 7.1 서울의 혼인인구 변화

#### 서울 전체인구의 혼인상태는 지난 3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아

결혼이 늦어지고 미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늘 접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혼인상태 구성도 크게 변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서울시 전체 인구의 혼인상태 구성은 크게 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젊은층에서 결혼이 늦어지고 늦게까지 미혼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1980년 서울 전체 인구 가운데 미혼의 비율은 37.7%, 유배우는 55.7%, 사별은 5.9%, 이혼은 0.8%였다. 30년이 지난 2010년 서울 전체 인구 가운데 미혼의 비율은 35.7%, 유배우 비율은 54.3%로 1980년보다 약간 적다.

#### 지난 30년간 가장 큰 변화는 이혼 비율의 상승

저출산과 고령화에 사로 잡히면 이혼의 증가로 인해 이혼상태에 머물고 있는 인구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 미혼과 유배우상태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이혼상태의 인구는 1980년 0.6%에서 2010년 4.1%로 3.5%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혼의 증가는 재혼의 증가도 의미 하지만 공식 통계로는 재혼이 유배우 상태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유배우의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만 할 수 있다. 재혼을 통해 이혼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상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혼인상태 변화의 가장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표 3-9 서울의 혼인상태별 인구와 비중 변화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계	명	5,748,352	6,906,420	7,977,882	8,051,161	8,035,723	8,143,250
	%	100%	100%	100%	100%	100%	100%
미혼	명	2,169,121	2,527,497	2,838,759	2,818,650	2,810,217	2,882,222
	%	37.7%	36.6%	35.6%	35.0%	35.0%	35.4%
유배우	명	3,201,764	3,945,479	4,617,764	4,665,689	4,593,286	4,526,590
	%	55.7%	57.1%	57.9%	58.0%	57.2%	55.6%
사별	명	341,838	382,404	446,406	466,542	456,965	481,211
	%	5.9%	5.5%	5.6%	5.8%	5.7%	5.9%
이혼	명	35,451	48,483	74,640	97,933	175,148	253,227
	%	0.6%	0.7%	0.9%	1.2%	2.2%	3.1%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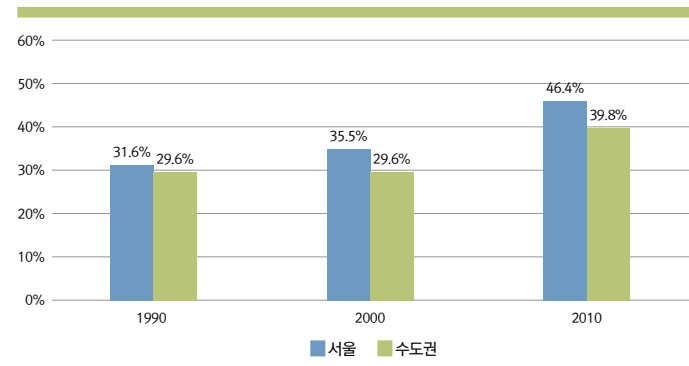


## 7.2. 20-49세 연령층의 미혼인구 변화

### 서울의 가임기 미혼인구 비율은 2000년 35.5%에서 2010년 46.4%로 크게 증가

20-49세까지의 가임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할 때 서울의 미혼비율은 1990년에 31.6%였고, 2000년 35.5%, 2010년 46.4% 등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1990년 29.6%, 2000년 29.6%으로 큰 증가가 없다가 2010년 39.8%로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의 가임시기 연령층 인구 가운데 거의 절반이 미혼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수도권은 이보다 작은 40%가 미혼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3-16 서울과 수도권의 20-49세 미혼인구의 비중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표 3-10 서울 남성의 혼인상태별 인구와 비중 변화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계	명	2,802,440	3,363,668	3,944,926	3,994,024	3,986,199	3,993,031
	%	100%	100%	100%	100%	100%	100%
미혼	명	1,187,689	1,380,095	1,576,281	1,579,924	1,574,876	1,592,218
	%	42.4%	41.0%	40.0%	39.6%	39.5%	39.5%
유배우	명	1,569,596	1,927,909	2,285,582	2,317,731	2,283,664	2,227,249
	%	56.0%	57.3%	57.9%	58.0%	57.3%	56.2%
사별	명	35,794	38,887	55,449	56,654	56,122	67,305
	%	1.3%	1.2%	1.4%	1.4%	1.4%	1.7%
이혼	명	9,268	14,661	27,302	37,781	71,514	137,972
	%	0.3%	0.4%	0.7%	0.9%	1.8%	2.6%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표 3-11 서울 여성의 혼인상태별 인구와 비중 변화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계	명	2,945,912	3,542,752	4,032,956	4,057,137	4,049,524	4,250,304
	%	100%	100%	100%	100%	100%	100%
미혼	명	981,432	1,147,402	1,262,478	1,238,726	1,235,341	1,360,469
	%	33.3%	32.4%	31.3%	30.5%	30.5%	31.5%
유배우	명	1,632,168	2,017,570	2,332,182	2,347,958	2,309,622	2,265,319
	%	55.4%	56.9%	57.8%	57.9%	57.0%	53.3%
사별	명	306,044	343,517	390,957	409,888	400,843	426,639
	%	10.4%	9.7%	9.7%	10.1%	9.9%	10.0%
이혼	명	26,183	33,822	47,338	60,152	103,634	197,877
	%	0.9%	1.0%	1.2%	1.5%	2.6%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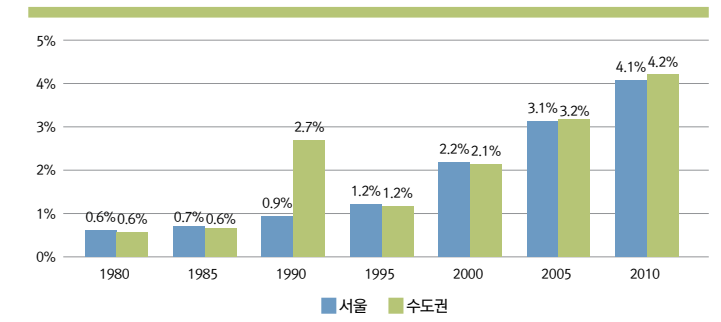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 7.3 이혼인구의 변화

### 서울과 수도권의 이혼인구는 지속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

서울의 이혼율은 1980년 0.6%에 지나지 않았는데, 1990년 0.9%, 2000년 2.2%, 2005년 3.1%, 2010년 4.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의 이혼율 역시 서울과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과 수도권의 이혼율의 변화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과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하면서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3-17 서울과 수도권의 이혼 인구 변화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 8. 외국인 인구

### 8.1 외국인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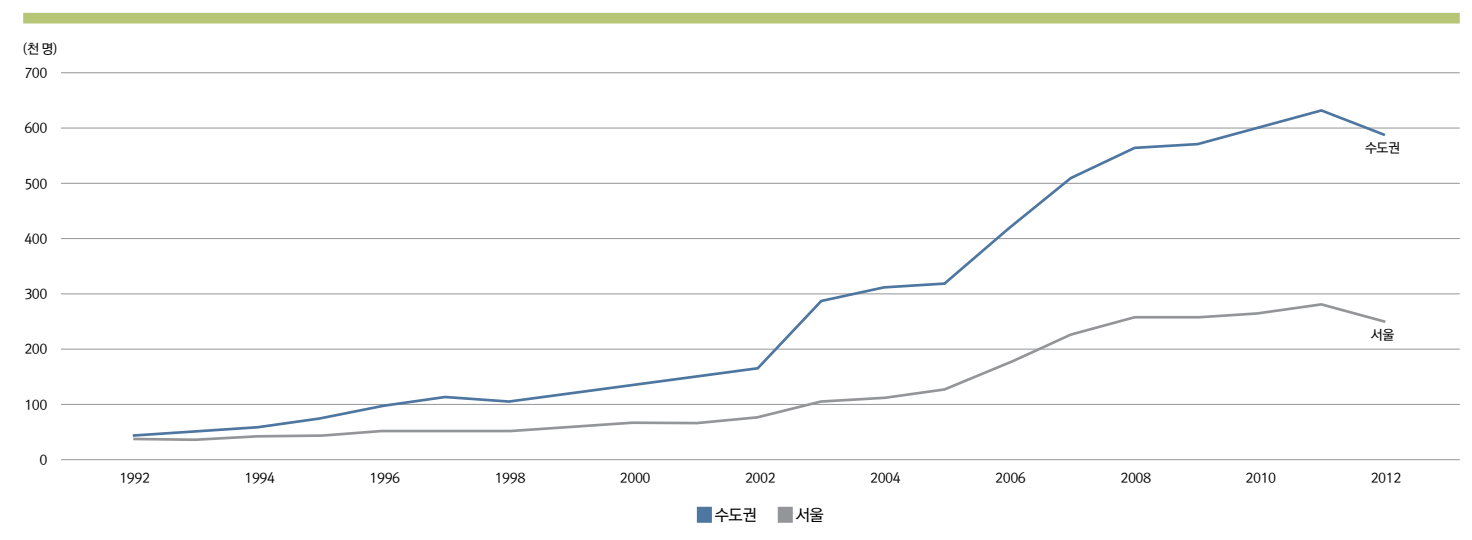
#### 서울의 외국인 수는 2011년까지 계속 증가하다, 2012년에 감소 추세

서울의 외국인 수는 2011년 279,220명에서 2012년에는 32,112명이 감소하여 247,108명을 기록하였다. 최근 20년간 증감추세는 서울, 수도권, 전국이 모두 유사하나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증가 폭이 전국수준보다 크며, 2005년부터는 서울의 증가율이 수도권의 증가율을 상회했다.

#### 2010년 기준 서울의 외국인 등록 인구는 26만 명으로 전체 등록인구의 2.49%를 차지

체류 외국인 등록 인구에 따르면 2010년 외국인 수는 262,902명으로 전체 등록인구(내국인+외국인)의 2.49%를 차지한다. 1995년 45,072명과 비교했을 때 2010년 서울의 외국인 수는 5.8배나 증가했다. 2000년과 2005년에는 서울보다 수도권의 외국인인구의 비중이 높았으나, 2010년에는 서울의 외국인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여 수도권의 2.35%보다 높은 2.49%를 기록했다.

그림 3-18 체류 외국인 등록인구 집계에 따른 서울과 수도권의 외국인 수 변화(1992-2012)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표 3-12 체류 외국인 등록인구 집계에 따른 서울과 수도권의 외국인 수(1992-2012)

구분	서울			수도권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1992	34,632	19,095	15,537	45,917	25,296	20,621
1993	35,965	18,793	17,172	52,311	28,742	23,569
1994	39,246	20,727	18,519	63,185	36,154	27,031
1995	45,072	23,745	21,327	76,175	43,721	32,454
1996	51,776	27,208	24,568	99,449	59,873	39,576
1997	52,923	27,736	25,187	112,338	69,299	43,039
1998	50,990	26,731	24,259	103,880	62,718	41,162
1999	57,189	29,521	27,668	120,320	72,416	47,904
2000	61,920	31,581	30,339	139,142	83,917	55,225
2001	67,908	34,045	33,863	152,407	89,180	63,227
2002	73,228	35,869	37,359	163,915	91,152	72,763
2003	102,882	48,786	54,096	288,753	169,379	119,374
2004	114,685	54,066	60,619	312,505	182,030	130,475
2005	129,660	61,246	68,414	317,285	182,307	134,978
2006	175,036	83,374	91,662	415,297	237,258	178,039
2007	229,072	111,467	117,605	508,566	285,717	222,849
2008	255,207	122,923	132,284	560,555	307,149	253,406
2009	255,749	122,090	133,659	570,409	310,068	260,341
2010	262,902	125,483	137,419	598,156	326,451	271,705
2011	279,220	134,655	144,565	631,884	343,201	288,683
2012	247,108	118,329	128,779	582,664	315,448	267,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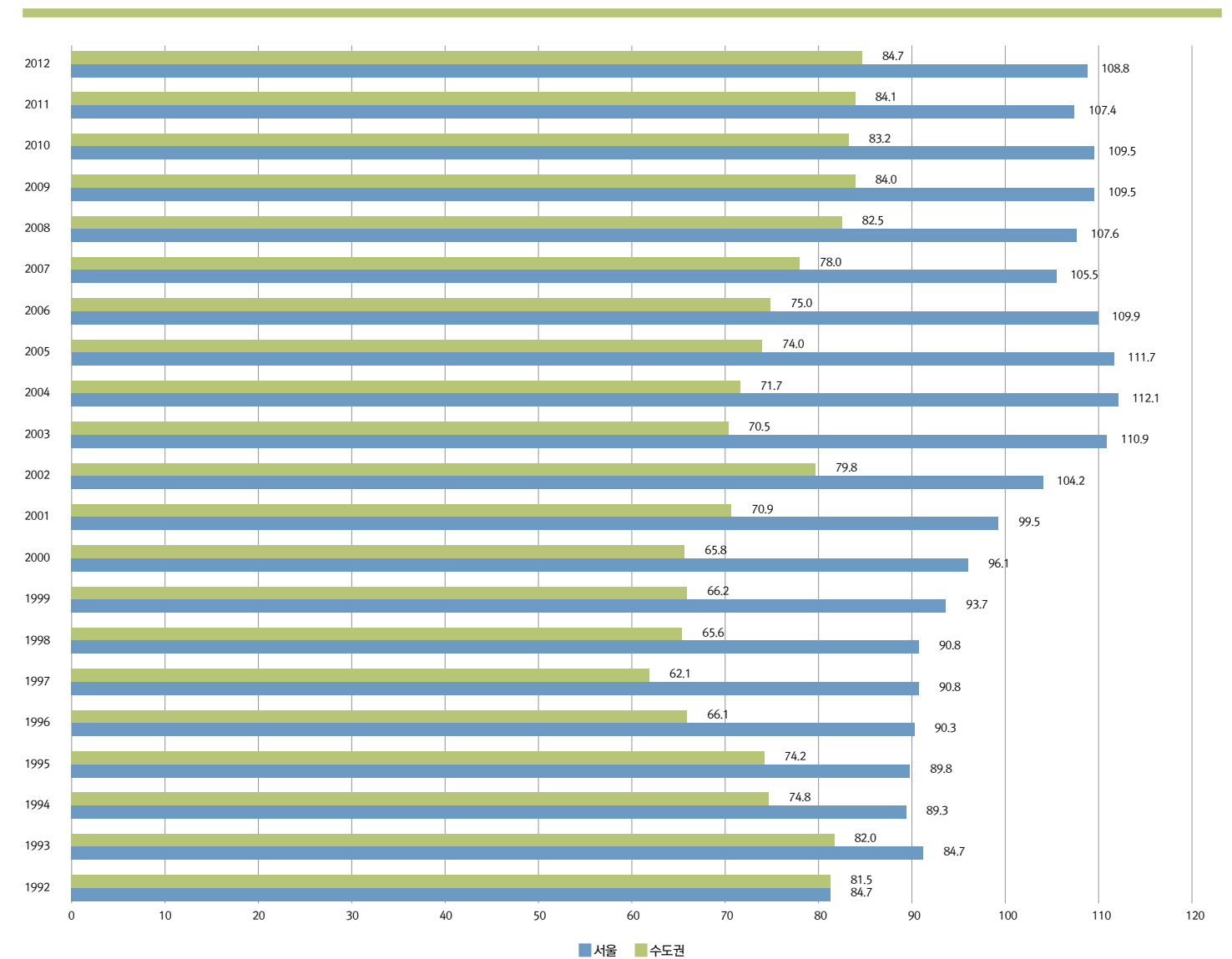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 8.2 외국인 인구의 성비변화

### 외국인수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아

1992년부터 시작된 자료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 모두 초기에는 여성 외국인의 유입이 남성 외국인의 유입보다 많았다. 1992년 자료로는 서울과 수도권 모두 외국인의 성비가 81.4 정도로 매우 비슷하고, 여성 초과 이민 현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1993년 자료부터 서울의 외국인 성비는 91.4 인데 반해 수도권의 성비는 82에 머물러 있다. 즉 서울에 여성보다 남성의 유입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의 남성 외국인이 여성 외국인 수를 초과하여 성비가 100을 넘게 된다.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외국인의 수가 더 많다.

그림 3-19 서울과 수도권의 외국인 인구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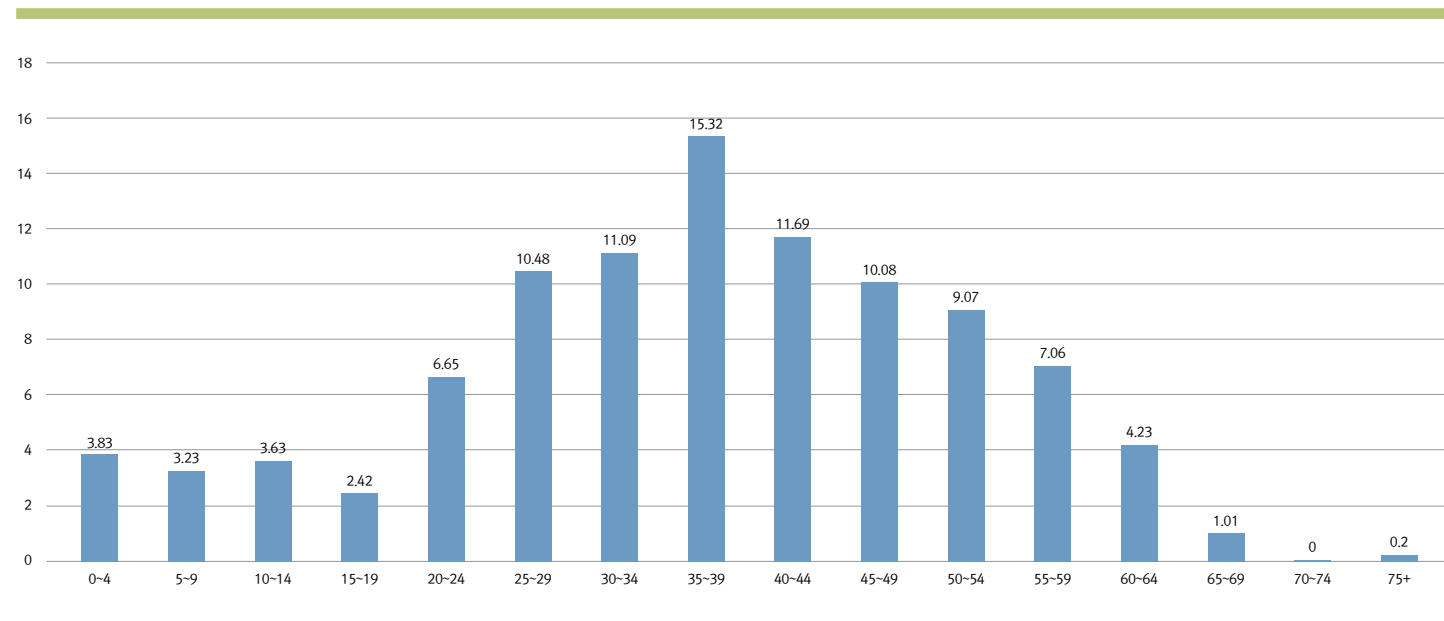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 8.3 서울 거주자 중 외국출생자

#### 서울지역 외국 출생자는 35-39세를 기준으로 마치 정규분포와 같은 연령분포를 보임

2010년 인구총조사 1% 표본원자료를 분석해 보면, 서울지역에 있는 외국출생자의 연령분포에서 35-39세 사이의 외국인이 가장 많아 전체 외국출생자의 15.3%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40-44세와 30-34세로 각각 11.7%와 11.1%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연령이 적어지거나 높아질수록 외국출생자의 비율이 감소한다. 그래서 35-39세를 중심으로 외국출생자가 가장 많고, 젊거나 나이들수록 외국출생자의 수가 감소하는 소위 정규분포 비슷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그림 3-20 서울지역 외국출생자의 연령구조



자료 : 2010 인구총조사 1% 표본원자료

## 9. 요약

### 9.1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 2010년 서울의 성비는 96.3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성비는 1980년과 1985년 100 미만이었다가,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100 이상을 기록한다. 그러다 2005년부터 서울의 성비는 100 미만을 기록하며, 2005년 여성 100명 대비 남성의 수는 98명, 2010년 96명을 기록한다. 전국적으로도 2005년부터 성비가 낮아지나, 서울의 여성대비 남성 인구수의 감소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 서울시 출생시 성비는 지속 감소하여 2010년 106.9를 기록

전국적으로 1990년대에 출생시 성비가 크게 왜곡되었다. 1990년 출생시 성비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116.5이고 수도권은 112.4, 그리고 서울은 113.3였다. 대개 자연상태에서 출생시 성비는 102-107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의 출생시 성비는 거의 자연상태의 성비로 돌아왔다.

#### 셋째 자녀 이상 순위의 출생시 성비는 여전히 남아선호 현상을 보여줌

출생순위별로 출생시 성비를 보면 서울의 경우 1990년에 첫째 자녀의 출생시 성비는 108.3, 둘째 자녀 출생시 성비는 113.0이었다. 그런데 셋째 자녀의 출생시 성비는 199였다.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여아 1명이 태어 나면 남아 2명이 태어날 정도로 출생시 성비가 크게 왜곡되어 있었다.

####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지속적 증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서울의 유소년 인구는 지난 30년 동안 1980년 31.3%에서 2010년 13.9% 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80년 2.5%에서 2010년 9.3%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수도권과 전국은 유소년인구의 경우 각각 31.8%에서 16.2%, 34%에서 16.1%로 감소하였고, 고령인구는 수도권이 2.9%에서 9.0%, 전국이 3.8%에서 11%로 증가하였다. 전국 고령인구의 11%와 서울의 고령인구 9.3%를 비교하면 서울의 고령화 수준은 전국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며, 15-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연령층 인구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높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이다.

### 9.2 학령인구와 교육수준

#### 2010년 현재 서울의 학령인구 규모는 183만 명, 2010년 이후는 계속 감소 예상

학령인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인구를 칭한다. 각급 학교의 교육연한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6세부터 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그리고 대학교는 18세-21세까지를 학령인구라고 칭한다. 각급 학교별 연령층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2010년 현재 서울시의 경우 183만 명이다. 2000년 서울시의 학령인구 규모는 234만 명이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서울시의 학령인구는 무려 50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2010년 학령인구 규모는 2020년 135만 명, 2040년 118만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 20~49세 인구의 40.5%가 대졸 이상 학력층

생산가능인구 가운데에서도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교육에 가장 깊게 연관되어 있는 20-49세 연령층에서 서울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의 비율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 연령층의 대졸 이상자는 22.9%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40.5%에 이르렀다. 이를 수도권의 33.6%, 전국의 29.6%와 비교하면 서울의 고학력 인구의 집중정도를 알 수 있다.